

조선시대 복식의 니트 기법 연구

임 영 자* · 권 진**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The Study on Knitting Techniques in Joseon Dynasty

Young-Ja Lim* · Jin Kwen**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Doctoral Course,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2003. 8. 18 토고)

ABSTRACT

The knitting, which has developed from the onset of human civilization, has a close relation to dwelling as well as to clothing itself. Its progress has taken shape in a variety of forms according to nature-friendly tools and its knit texture in the past is different from that of modern times. With this basic idea, the work aims at the further study of various knitting structure which triggered the origin of modern techniques, the establishment of those methods, and the finding of what means was utilized earlier based on these. By doing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the foundation in the Korean historical timeframe in knitting field and give definition to knit wear in a historical sense.

As to definition, the outcome in the research boils down to two categories, broad meaning and narrow meaning. The former can be the hook-formed textile, referring to making, twisting, or binding the knots. On the other hands, the latter, that is, narrow type, can be the loop-linked fabric which can be defined as modern knitting.

The knitting dates back to the ancient way of binding structure, combining structure in other words, and braiding structure and this kept dividing into subgroups like Netting, Nålbinding, Sprang and Crochet as the usage of hands and tools by mankind has got improved. And it changed into knitting and crochet which means a bamboo needle-hook knitting (larger needle type) and a crochet-hook knitting (smaller needle type), respectively through middle ages and modern times and settled down to the production of fabric. In this work, Netting, Nålbinding, Sprang and Crochet are classified as ancient category in which these originate the modern knitting method.

Though the modern type of knitting is not found in the Joseon Dynasty, some various methods from the ancient twisting skill and binding skill where the materials with easy access to acquisition in the

Corresponding author: Young-Ja Lim, E-mail: limyj@sejong.ac.kr

nature such as rattan, straw, horsehair, hemp, rush, cotton, silk and the like to Netting, Nålbinding and Sprang except Crochet were handed down and used in costume for diverse application.

This work can provide the basic frame in terms of Korean history of knitting which has been excluded in the relevant researches until now. When applying the study, it would trigger the initiation of more versatile design with which the previous unique techniques along with modern techniques can be adopted in the clothing market as knit designs gain in public favor more and more.

Key words: knit(니트), Netting(네팅), Nålbinding(낼바인딩), Sprang(스프랭), Crochet(크로쉐)

I. 서 론

현대 의류시장에서 니트의 활용을 볼 때 미국에서는 우븐(Woven)과 비교하여 니트(knit) 사용이 이미 50% 넘었으며 우리나라로 니트의 활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산업화에 따른 기계 발달에 따라 다양한 조직들이 의복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류시장 변화 경향과 함께 니트에 대한 연구¹⁾²⁾³⁾가 점차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연구의 대부분은 외국 사례가 중심⁴⁾⁵⁾⁶⁾⁷⁾이 되고 니트에 대한 정의 또한 영어권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범위를 좁게 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니트를 편물이라 하여 그 범위를 보다 넓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니트는 인류의 문명과 함께 발생하여 의생활뿐만 아니라 주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발달되었고, 자연 친화적인 소재들을 활용하여 제작도구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현대의 니트 조직과는 다른 기법으로 활용되었다. 이점에 착안하여 현대의 니트 기원이 되었던 다양한 구조들을 연구하고 기법들을 정립시키며 이를 토대로 우리의 전통 복식에 이용된 기법들을 밝혀 한국 니트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니트 정의 확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외국 학자들의 저서⁸⁾에 의하면 니트의 기원이 되는 여러 기법들을 ‘니트와 혼동될 수 있는 구조’라 하여 니트의 범주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렇게 배제된 구조가 과거 우리나라에서 니트의 다른 명칭인 뜨개질이라는 것으로 제작 활용되었다는 것에 의문점을 가지고, 그 구조들도 넓은

의미의 니트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국내 핸드니트는 제작하는 도구인 바늘에 따라 코바늘뜨기, 대바늘뜨기, 아프간뜨기(Tunisian crochet) 등으로 구분되지만 영어에서는 바늘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다. 즉 코바늘뜨기는 니트라는 용어 대신 크로셋(Crochet)이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서의 니트 의미와 범위는 보다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선행 연구들 보다 니트의 범위를 폭넓게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론적 배경의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으로써 국내·외의 단행본, 학위논문, 간행물들을 참고하였으며, 복식에 활용된 니트기법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조선시대로 한정하였고, 그의 실증적인 분석을 위하여 박물관의 현준물이나 조선시대 복식관련 단행본이나 인터넷사이트(internet site)에서 자료를 검색하였다.

II. 니트의 정의와 기법

니트의 언어적 출현과 그 기법의 출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언어학상 니트는 16세기 이후에 생겨나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기법에 대한 기원은 언어적인 출현보다 훨씬 앞서 있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언어의 출현과 니트기법의 발생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 기법을 세분화하고 니트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1. 니트의 정의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니트의 용어는 직물처럼 하나의 단어로 정의 내려지지 않는다. 니트의 다른 용어로는 지역적이나 기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편물, 또는 것, 스웨터, 메리아스, 저어지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나 최근에 오면서 이러한 용어들은 니트로 대표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1990년대 이전까지도 니트라는 용어보다는 가내수공업의 의미가 포함된 뜨개질 또는 편물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화 추세에 의하여 글로벌로 통용되는 영어인 니팅(knitting) 또는 니트(knit)로 대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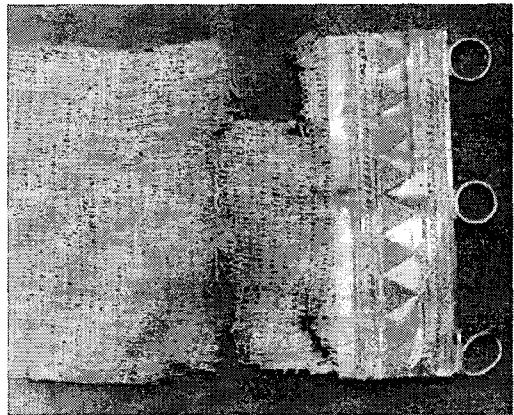
미국에서의 통용하는 니트라 함은 핸드니트 가운데 대바늘을 이용한 뜨기 원리⁹⁾와 그 원리가 발전된 기계니트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출간되고 있는 편물 관련 서적의 니트라 함은 대바늘뜨기의 기법으로 생성된 패브릭(fabric) 뿐만 아니라 레이스를 만들 수 있는 코바늘뜨기나 아프간뜨기 등을 포함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언어가 국제적인 교류를 하면서 그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니트의 정의가 폭넓게 정립되어야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독일의 민속학자인 리프스(Rips)는 또는 짜는 것은 인류에 알려진 가장 오래된 수공이며, 바구니나 광주리 같은 용기를 만드는데 이를 이용함으로써 편물의 기술적 원리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¹⁰⁾ 또한 니팅(Knitting)은 고대 산트리어인 그물이나 실을 짜거나 바구니를 뜯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나이트(Nahyat)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¹¹⁾ 는 점에서 니트의 범주로 끈목을 꼬거나 엮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 패브릭(fabric)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니트는 인류의 도구 사용과 함께 생겨나 그 지역의 자연적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명명되어진 후, 전쟁이나 무역 등의 교류에 의하여 상호 교환되어 새로운 의미나 형태로 발전하였다.

기원전 니트가 가장 발달한 지역은 중동지역으로 여러 가닥의 끈목을 서로 맷어 연결시키면서 매듭지어 내려가는 맥크라메(macrame)가 발전하여 BC

1000년경 북서 이란에서는 이미 현대의 대바늘뜨기의 니트형태와 동일한 구조<그림 1>가 존재하였으나 그의 명칭을 확인 할 수 없다.



<그림 1> BC 1000경 북서이란의 금사로 된 편물
Metropolitan Museum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니트 기술 기원의 유사한 니트 증거품’¹²⁾ 또는 ‘흔동할 수 있는 구조’¹³⁾로 네팅(Netting), 낼마인딩(Nålbinding), 스프랭(Sprang), 크로쉐(Crochet) 등이 연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구조 중에서 크로쉐(Crochet), 네팅(Netting), 낼마인딩은 우리나라에 혼존하고 있는 기법으로 그 범위의 구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니트의 ‘스티치(Stitch)’는 대바늘뜨기, 코바늘뜨기, 아프간뜨기 모두에서 한국어로 ‘코’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탕건을 만들 때 부르는 제주도의 민요인 <탕건노래> 가운데에는 ‘삼백예순코를 드치난(삼백예순코를 마치고 나니)’라는 부분에서 탕건을 만드는 매듭 하나 하나를 ‘코’로 표현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에서의 ‘코’의 의미는 외국에서의 ‘스티치(Stitch)’의 의미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스티치’가 한국어의 ‘코’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는 것을 보아 묶거나 매듭을 짓거나 코를 떠서 만들어진 패브릭을 넓은 의미의 니트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에서처럼 해외의 니트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니트에 대한 정의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의 니트 의미는 과거 뜨개질이나 편물의 의미를

대신하면서 정착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패브릭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 니트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니트의 의미는 크게 넓은 의미의 니트와 좁은 의미의 니트로 구분 할 수 있다. 협의의 니트는 대바늘뜨기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루프(loop)가 연결된 패브릭이라 할 수 있으며 현대 니트라고도 할 수 있다. 니트의 기원에서 연구되어진 네팅, 낼바인딩, 스프랭, 크로쉐 등이 현존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니트는 직기를 이용하지 않고 매듭을 만들거나 꼬거나 엮어 코를 만들어 엮어 나가는 텍스타일(Textile)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니트 기법에 포함시킨 네팅, 낼바인딩, 스프랭, 크로쉐 등이 고대의 니트 기원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대 니트 기법’들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니트의 기원에서부터 현대의 흐름을 보면 <표 1>같이 파악할 수 있다.

다 발전하여 바늘 끝에 갈고리가 달린 오늘날의 코바늘과 같은 것을 이용하여 다양한 패브릭을 만들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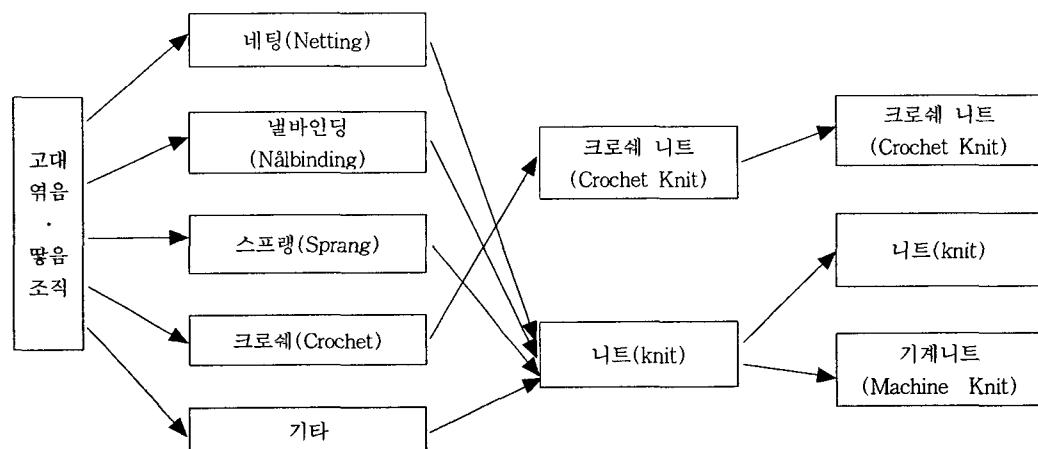
1) 네팅(Netting)

인류에 알려진 가장 오래된 수공인 뜨는 것과 짜는 것에서 바구니나 광주리 같은 용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편물의 기술적 원리가 발전 것으로 볼 때 네팅(Netting)은 고대 니트 조직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현대의 의상에도 종종 이용되고 있다.

네팅은 매듭짓기(Knotting)와 고리만들기(Looping)¹⁴⁾를 포함하는 전반적 용어이며, 니트 조직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것으로 손가락을 도구로 하여 꼬거나 매듭을 지어 코를 형성하는 제작 기법의 하나이다.

네팅은 농경 생활 이전부터 의생활이나 주생활에 이용된 것으로, 끈목이나 매듭을 엮어 일상 생활 전반에 응용되었고 승문토기<그림 2> 곧 새끼 무늬로

<표 1> 니트의 변천 과정



2. 고대 니트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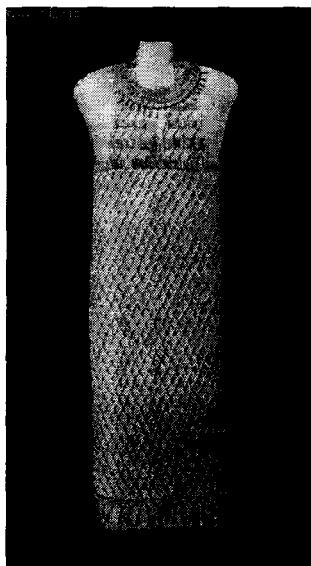
고대의 니트 기법들은 현대의 기계나 대바늘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손을 직접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고, 뼈나 선인장 가시로 된 오늘날의 바늘과 유사한 형태의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보

기¹⁵⁾로도 만들게 되었다. 나아가 운반, 농경, 건축, 선박의 장 등으로 그 용도의 폭을 넓혔으며, 그 다음 단계로는 이들의 상호 연관과 합성으로 좀 더 실용적인 의식용, 장식용, 공업용 매듭으로 발전시켰다.¹⁶⁾ 특히 의상으로의 발전은 고대문명의 에게문명¹⁷⁾이나 이집트에서부터 현대까지 존재하는 누의(紐衣)¹⁸⁾



<그림 2> 신석기 시대의 승문토기

로 변화하였고 그것들은 네팅 의상<그림 3>이나 니트의 의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 종의 문화와 상호 교차하면서 발전된 네팅(Netting)은 매듭인 매크라메(macrame), 레이스를 만드는 크로쉐(Crochet), 니트 등으로 분화하였다.¹⁹⁾



<그림 3> 이집트 왕조
BC2500년경 Museum of Fine Arts
: Boston

네팅(Netting)을 다른 용어로 매크라메(macrame)

라 쓰이기도 한다. 원래는 수놓은 베일을 뜻하는 아랍어 미그라마(migramah)와 보다 직접적으로는 냅킨, 타월 등을 뜻하는 터키어 마크라마(makrama)에서 유래했다. 그 물품들은 술장식(fringe)을 가지고 있고 13세기 아라비아에서 발전하여 무슬림들을 통하여 유럽으로 전파되고 17세기에는 영국으로 전파되었다.²⁰⁾

우리나라의 경우 길게 짧은 나무껍질이나 짐승의 가죽, 초목 넝쿨을 두 가닥으로 꼬아 쓰다가 세 가닥, 네 가닥으로 땋아 엉음새로 진전을 보았고, 그 후 네 가닥 이상으로 짜는 끈목으로 발전²¹⁾하였으며 더 나아가 조선시대에는 짜는 끈인 다휘(多綺)²²⁾와 가마나 후수 등의 술장식이 달린 엮은 조직 등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니트의 기법 가운데 도구를 이용하여 니팅을 하지 않고 손가락만을 이용하여 니트를 만들어 내는 손가락뜨기의 방법들이 존재한다. 손가락뜨기와 네팅 모두 손가락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가 일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팅은 손만을 이용하여 만든 조물(組物)로써 니트 태동기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이며 <표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엮는 방법(Knotting)에 따라 매우 다양한 패브릭 구조가 형성된다. 또한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 의복형성방법의 하나로 응용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 낼바인딩(Nålbinding)

니트를 협의의 의미로 한정하는 학자들의 견해에서 낼바인딩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니트 기법이다. 그러나 니트의 정의를 보다 넓게 확장시키면 낼바인딩 이전에 다른 기법이 존재하므로 고대 기법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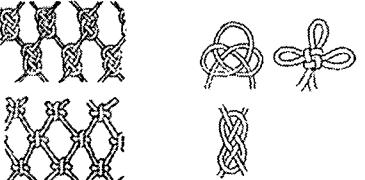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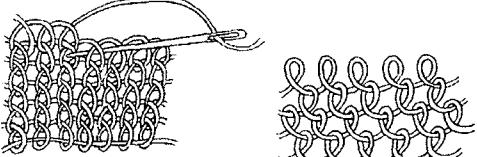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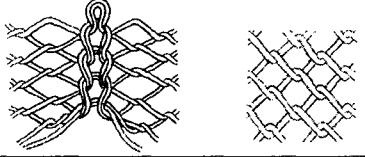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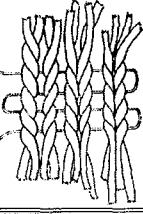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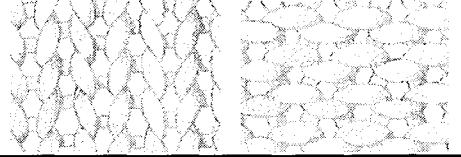
이 기법은 아프리카, 스칸디나비아반도나 다른 지역들에서 루프로 형성된 페이브릭(looped fabric)을 만드는 고대의 방법²³⁾으로 크로스 니팅(Crossed knitting), 싱글 니들 니팅(single needle knitting), 프세우드 니팅(pseudo knitting), 매듭이 없는 네팅(Knotless netting) 등 다양하게 불리며, 이것이 발전되어 페루의 프린지(fringes, peruvian fringes)가 되었다²⁴⁾²⁵⁾고 연구되었다. 낼바인딩이 매듭이 없는 네

팅(Knotless netting)이라고 언급되는 것을 통하여 네팅에서 분화된 구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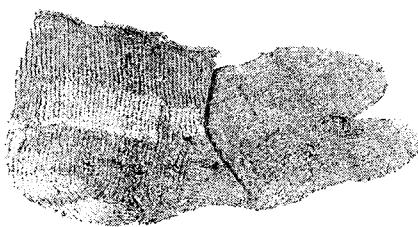
넬바인딩의 구조는 <표 2>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도구인 바늘을 넣는 부분에 따라 가로방향의 다른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제작도구는 현재 바느질에 쓰이는 바늘과 유사한 형태의 바늘로 끌제(骨制) 혹은 선인장 가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형성 방법으로는 바늘끼에 실을 끼어 마치 바느질하듯 바늘틈(스

티치)을 반바퀴 회전하여 계속적인 고리를 만들어 연결하여 패브릭을 완성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패브릭은 외형상으로는 마치 현대의 니트처럼 루프가 연결되어 있으나 루프의 형태는 좌우가 꼬아져 있는 점이 다르며, 이와 같은 구조로 현대의 니트에서 코 하나가 손실되면 런(run)현상이 생기지만 넬바인딩의 구조에서는 런(run)현상이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

<표 2> 고대니트기법

구분 정의	명칭	도구	기법과 형태
나트 (광의)	네팅 (Netting)	손을 이용	
	넬바인딩 (Nålbinding)	뼈바늘 또는 선인장가시바늘(현대의 바느질에 사용하는 바늘과 유사한 형태)	
	크로쉐 (Crochet)	바늘의 앞이나 뒤 또는 앞뒤 모두의 갈고리가 있는 형태(현대의 코바늘 형태)	
	스프랑 (Sprang)	손이나 다른 도구	
	기타 (Table Weaving)	손이나 다른 도구들	
현대 니트 (협의)	니트	대바늘, 코바늘, 현대의 공업용니트 기계	

유물로는 AD 2세기의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굴된 로마시대의 양말<그림 4>로 이집트인들에 의해 짜여졌고, 건조한 기후 덕분에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이것들은 튜브형으로 발가락 끝에서부터 편직을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이 작업은 계속해서 실을 연결해야 하고 새로운 고리를 만들기 위해 고리가 달린 바늘로 먼저 형성해 놓은 고리를 잡아당겨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집트인 바늘에서는 고리 달린 바늘이 유행하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고리가 없는 빛나는 바늘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²⁶⁾고 한다.



<그림 4> 4세기경 이집트
넬바인딩(Nälbinding)으로 제작된 샌들용양말

3) 크로쉐(Crochet)

크로쉐(Crochet)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핸드니트 가운데 레이스를 만들 수 있는 코바늘뜨기 기법을 말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바늘뜨기에 사용하는 바늘을 니팅 바늘(Knitting needle)라고 하며 코바늘은 크로쉐 후크(Crochet hook)로 구분을 하고 있어 니트의 범주에 코바늘뜨기인 크로쉐 니팅(Crochet Knitting)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편들이 도입된 이후 계속적으로 코바늘 뜨기라는 명칭과 작업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때 크로쉐는 니트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크로쉐팅의 역사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손가락 크로쉐팅(finger crocheting)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²⁷⁾고 현재까지 전해져 목도리의 제작 등에 이용된다. 크로쉐은 남아프리카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약 1860년경 영국에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기법이었으며, 현대의 다양한 크로쉐 기법은 영국의 빅토리안 시대에 생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크로쉐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의 ‘작은 같고리’를 의미하며, 18세기 말 영국에서는 ‘양치기 목동의 손잡이가 구부러진 지팡이 니팅(shepherd's crook knitting)’으로도 알려졌고, 솔이나 목도리의 제작에 이용되었다.²⁸⁾ 또한 중세에는 수녀들 사이에 매우 인기가 높았고, 19세기에는 아일랜드 여인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레이스를 만들었으며²⁹⁾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수작업으로 레이스나 의상 또는 다른 소품의 제작에 이용하고 있다.

크로쉐팅(crocheting)은 앞이나 뒤 또는 바늘의 앞과 뒤 모두에 후크(hook)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매듭이 있는 고리로 형성된 패브릭을 지칭하며, 루프는 수평방향이나 수직방향을 모두 만들 수 있다.

그 형태나 구조는 <표 2>에서와 같이 실을 고리가 달린 바늘 주위에 나선형으로 감싸서 계속해서 코를 만들어 연결하는 것이다. 고리 만들기의 반복으로 첫 번째 횡렬(row)을 만들면 실을 반대방향으로 돌려 페이브릭을 완성한다. 고리(loop) 만들기 위하여 꼬아주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패브릭이 만들 수 있다.

4) 스프랭(Spr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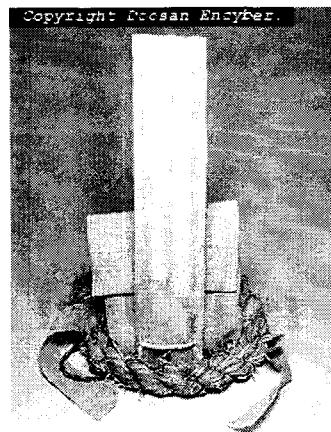
스프랭(Sprang)은 염밀히 말하면 패브릭의 구조라기보다는 패브릭의 형성방법이다.³⁰⁾

스프랭은 고대부터 신축성 있는 패브릭을 만드는 기법으로 이용되었으며, 출현시기는 네팅의 출현시기와 유사하다. 스프랭이란 말 자체는 스웨덴어 스프랑닝(sprangning)에서 온 것이며 고고학적 유물은 BC 1400년경 덴마크의 습지에서 발견된 헤어넷(hair-net)³¹⁾에서 그 기법을 알 수 있다. BC 1100년경의 페루 무덤들에서도 유사한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고대 이집트에서 유사한 구조들이 존재하였고, 로마정복시에는 북부 유럽에도 폭넓게 사용되었다.³²⁾

스프랭은 틀(Frame), 직기엮기(loom plaiting), 그물짜기(Meshwork)로 알려졌다. 틀이란 용어에서처럼 틀에 실을 걸고 손가락으로 실을 엮는 조작을 동시에 실행하여 상하동형(上 下 同 形)의 패턴을 만들어낸다. 스프랭은 경사 없이 위사만을 틀에 펼쳐 서로 꼬거나 교차시켜³³⁾³⁴⁾ 그물 구조를 형성해간다.<표 2>

스프랭(Sprang)은 손과 틀을 이용한 조물(組物) 구조로 여러 실을 서로 얹어 그물 구조의 코로 만들어낸 패브릭(fabric)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물 구조의 패브릭(fabric)이 존재하였는데 틀을 사용하지 않고 손만을 이용하여 꼬아 만든 1~2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리(纏)³⁵⁾가 평양 석암리와 체협총에서 출토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테이블웨빙(Table Weaving)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그의 기법은 <표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세로로 꼬아준 끈을 놓고 가로로 끈들을 엮어 주어 표면이 마치 현대의 니트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다.



<그림 5> 굽건(屈巾) 야후백과사전

III. 복식의 니트 기법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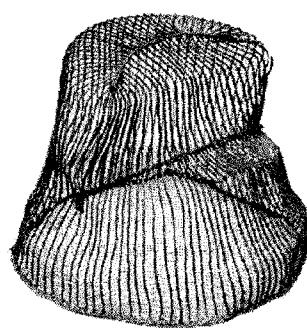
복식류는 신분상 구별 없이 인체를 기준으로 하여 모자류, 의상류, 신발류, 장신구류의 수직적인 구분을 하고 각각 그 기법 활용을 고찰하였다.

1. 모자류

복식의 분류 가운데 모자류는 고대니트 기법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활용 또한 여러 물품에서 다양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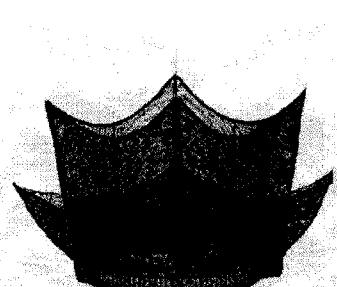
모자류에는 네팅의 기원인 단순 꼬임 조직도 확인된다. 그 꼬임의 형태는 <그림 2>의 승문토기의 꼬임과 유사하다.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는 상복 가운데 상주가 머리에 착용하는 굽건<그림 5>에서 그의 조직을 발견할 수 있다. 승문토기의 꼬임은 네팅의 준비단계로 니트의 루프의 원류가 되는 것이며 니트 초기의 생성과정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그림 5>의 굽건 테두리에 짚으로 꼬은 부분과 <그림 2>의 토기 가장자리의 꼬임을 비교하면 그의 형태가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굽건 테두리의 소재를 특별한 가공 없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대로의 짚으로 활용함으로써 네팅의 초기 형태를 보존 계승될 수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조선에서 발전한 독특한 모자(冠)인 탕건(宕巾)에서도 그의 기법을 확인 할 수 있다. 탕건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신분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착용하였던 모자의 일종으로 그들은 상투를 틀고 망건(網巾)으로 머리를 간추렸고 그 위에 탕건을 썼다. 사대부들은 집안에서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항상 탕건을 착용하였으며, 외출시에는 잣이 움직이지 않도록 밭쳐 쓰곤 하였다. 탕건은 말총을 소재로 하고 그의 구분은 상인에 따라, 제작자에 따라, 탕건결을 내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의 제작 기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탕건결을 내는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그의 기법을 고찰하였다. 탕건결에 따른 분류는 홀탕건<그림 6>, 겹탕건, 바둑탕건, 한립탕건으로 구분된다.³⁶⁾ 결을 내는 방법은 코를 맷어 가는 방법에 따라 다른 기법으로 제작된다. 대부분의 탕건, 정자관<그림 7>, 방건<그림 8> 제작에는 <그림 9>의 줄머리 넣기 방법인 넬바인딩이 전반적으로 활용되었고 바늘의 형태 또한 넬바인딩에 이용되는 싱글 니들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림 9>의 홀탕건을 맷어가는 방법에는 손과 바늘을 이용하여 매듭짓는 매크라메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그림 10 좌>의 겹탕건의 줄을 세우는 방법은 <표 2> 넬바인딩의 첫 번째 기법인 크로스 니팅(Crossed knitting)이 이용되고 있으며 <그림 10 우>의 바둑탕건 맷어가는 방법은 <표 2> 넬바인딩의 두 번째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림 6> 탕건(容巾) 광주민속박물관

정자관<그림 7>은 조선 중기 중종(中宗)·명종(明宗) 이후 구한말까지 사대부들이 널리 쓰용한 관(冠)으로 평상시 집안에서 망건과 탕건 착용 후 그 위에 착용하였다. 이는 평상시에도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을 대신하여 등장한 것이다. 이 제작 역시 <표 2>의 넬바인딩 두 번째 기법을 이용하여 표면을 맷이 관(冠)의 형태를 완성하였다. 소재 역시 말총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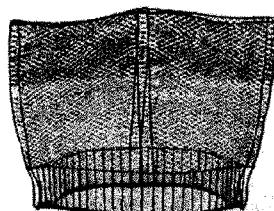


<그림 7> 정자관(程子冠) 단국대식주선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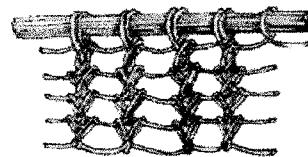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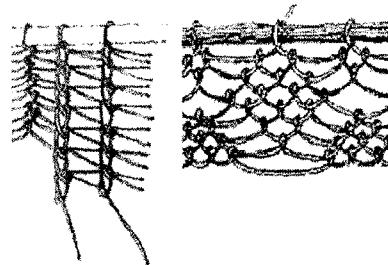
방건<그림 8> 또한 사대부(士大夫)들이 착용한 것으로 편복(便服)에 쓰는 건(巾)의 일종이다. 방건의 소재도 말총을 사용하였고, 넬바인딩과 스프랭을 응용한 기법이 활용되었다.

위처럼 조선시대의 모자류에서는 네팅, 넬바인딩, 스프랭 기법이 원형 그대로 전승되고 있으며 그의 제작도구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사용 소재를 천연에서 얻은 짚이나 말총을 그대로 응용함으로

써 고대 원형을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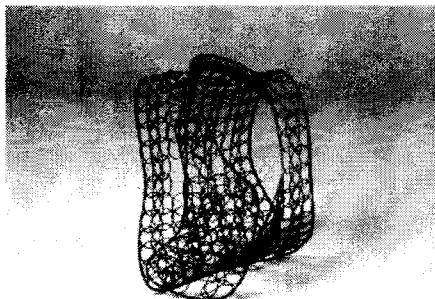
<그림 8> 방건(方巾) 단국대식주선박물관

<그림 9> 홀탕건
줄머리넣기(상) 맷어가기(하)<그림 10> 결탕건줄세우기(좌)
바둑팅건맷어가기(우)

2. 의상류

조선시대 의상류들의 대부분은 직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대 니트 기법의 활용은 모자류보다 폭넓지 못하고 특정 의상으로 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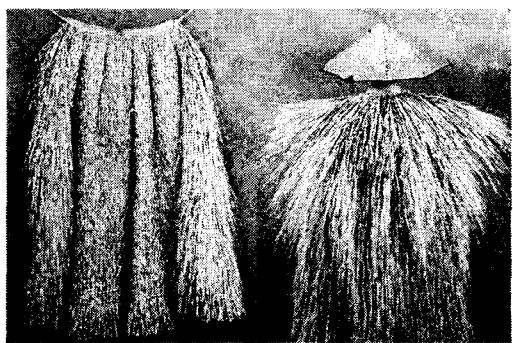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한 조상들의 여러 가지 지혜를 찾아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생활 지혜로 등거리<그림 11>를 언급할 수 있다. 등거리는 등나무를 재료로 만들었다 하여 등(藤)등거리라고도 하는데 여름철 살과 옷 사이에 간격을 두어 통풍의 기능을 하도록 한 것으로 소매 없는 조끼 형태로 만든다. <그림 1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등나무 덩굴로 가늘게 결을 만들고 성글게 엮어가며 제작한다. 둑글게 엮은 방법은 니트 기법의 낸바인딩으로 탕건처럼 가늘고 밀도가 높은 패브릭과는 다른 굵고 성글게 엮은 조직으로 완성된다.



<그림 11> 등(藤)등거리 온양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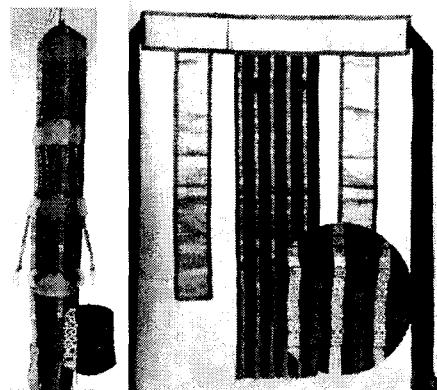
또 다른 니트 기법이 활용된 것은 우리의 재래식 우비인 도롱이이다. 옛말로는 되룡, 누역(縷繹)이라 하며, 풀, 벗짚 · 보릿짚 · 밀짚 등으로 안쪽을 촘촘하게 고루 잇달아 엮고 거죽은 풀의 줄거리를 아래로 드리워서 벗물이 걸으로만 흘러내리고 안으로는 스미지 않게 하여, 비 오는 날 외출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 의상이다. <그림 12>의 제주도롱이의 내부처럼 패브릭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그물구조의 네팅 즉 매크라메가 활용되었다. <그림 12>의 도롱이 내부와

<그림 3>의 구조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구조상의 유사점이 있다.



<그림 12> 제주비옷(도롱이)의 내부(좌)와 외부(우)

조선시대 왕 · 왕비 이하 문무백관들이 조복(朝服) 및 제복(祭服)을 입을 때 양옆에 늘이는 장식품인 패옥(佩玉)<그림 13>과 왕과 문무관리, 왕이나 백관의 조복(朝服) · 제복(祭服)을 입을 때 뒤에 늘어뜨리는 띠로 장방형의 천을 색실로 짜서 위쪽에 고리(環)를 달고 아래에는 청사망(青絲網)을 맷는³⁷⁾ 후수<그림 13>에도 네팅의 기법이 활용되었다. <그림 12>의 패옥과 후수의 확대된 부분에 보여지는 것은 단순한 네팅이 아닌 상당히 발달된 매크라메가 활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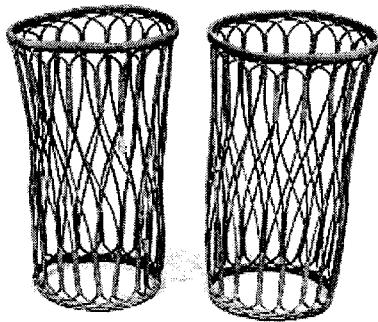


<그림 13> 패옥(佩玉)(좌)과 후수(後綬)(우)

여름에 소매 안에 끼우는 것으로 바람이 잘 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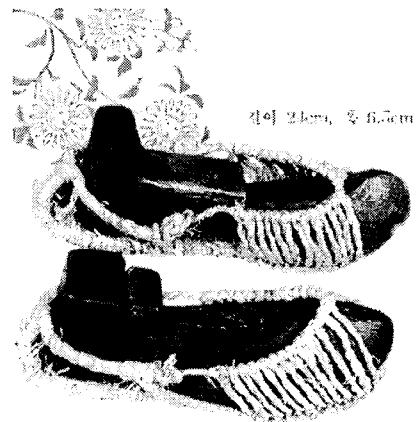
도록 할 때 사용하는 <그림 14>의 토시에도 고대의 니트 기법이 활용되었다. 둑거리처럼 둉나무를 재료로 사용하며 둑글게 엮어가는 낸바인딩과 틀을 활용하는 스프링 기법들이 응용되었다.

의상류에서 니트의 기법은 많은 부분 우리 전통 매듭을 포함한 발달된 네팅이 장식적 효과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활용되었고 특수 의상인 도롱이의 경우 네팅이, 등거리나 토시에서는 낸바인딩이 활용되었다.



<그림 14> 토시(吐手) 광주민속박물관

올치·백지·면사·견사 등의 짚보다 고급의 재료를 이용하여 삼는 신으로 짚신을 만드는 방법과는 유사하나 그보다는 더욱 정교하게 제작된 신이며, 기법 또한 짚신과 유사하다.



<그림 15> 짚신(草鞋) 광주민속박물관

3. 신발류

신발류에 이용되는 기법의 경우 의상류에 이용된 기법에 비하여 보다 한정된 기법이 나타난다. 대부분 엮어서 만든 신발류에 나타나는 것으로 네팅의 기법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네팅의 초기 형성과정인 <그림 2>의 승문토기의 꼬임과 매크라메 조직의 중간적 형태가 나타난다.

조선의 보편적 신발인 <그림 15>의 짚신에서 네팅의 형성초기의 단계인 꼬임 조직을 확인할 수 있다. 짚신의 역사는 약 2천여 년 전 마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신라시대의 유물인 짚신 모양의 이형토기(異形土器)는 오늘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³⁸⁾ 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용된 기법들이 큰 변화 없이 계승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림 15>의 짚의 꼬임은 <그림 2>의 꼬임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표 2>의 테이블위빙을 볼 때 위사로 엮어주는 조직이 없는 전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의 미투리는 삼·왕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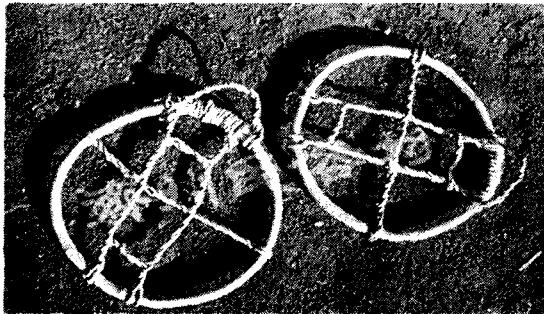


<그림 16> 지총미투리 국립민속박물관

눈이 많이 왔을 경우 방목 중인 마소를 돌보려 나가거나, 사냥을 나갔을 때 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는 덧신의 일종 설피<그림 17>에서는 <그림 2>의 꼬임이 그대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네팅의 단순꼬임 조직에서 발달된 엮음 조직이 활용된 짚신보다 조직점이 많은 신도 존재하였다. 짚을 이용하여 만든 설피와 유사한 용도로 산간지방에서 눈이 많이 올 때 신는 신의 하나인 둉그니신<그림 18>은 짚신의 엮음 조직이 발달된 형태의 기법이 이

용되었다.



<그림 17> 태월(설피) 제주민속촌박물관



<그림 18> 둥그니신 온양민속박물관

신발류의 경우 네팅의 초기 고대 기법들이 매크라메로 발전되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고대 니트의 기법들이 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이는 네팅의 기본인 꼬임을 거쳐 꼬임선을 연결하는 과정과 더욱더 나아가 염음 조직까지 고대의 니트기법인 네팅이 계승된 것이다.

4. 장신구류

니트기법이 나타나는 조선시대의 장신구류에는 끈목과 편조(扁組)가 중심을 이루며 대부분이 매듭 구조로 매크라메가 상당히 발달하였으며, 그 기법 또한 다양하게 세분화되었다.

<그림 19>의 귀걸이술에 단순 매크라메 구조인 꼬임에서 염음으로 변화된 구조로 신발류에서 알 수 있는 네팅보다 진화된 기법들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네팅은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네팅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매듭<그림 20>이라 불려지는 매크라메가 생활전반에서 쓰이는 장신구로 꼭넓게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매듭의 이용은 해금·박·향필률·대적·당피리·소·향발 등의 악기류 장식에도 사용되었고, 단령이나 노리개 또는 장삼등 그 활용 범위가 대단히 넓게 이용되었으며, 그 명칭도 생죽매듭, 국화매듭, 병아리매듭, 도래매듭, 가지방석매듭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³⁹⁾ 앞에서 언급된 네팅의 구조를 가지는 복식류는 어느 정도의 면을 형성하거나 최소한 패브릭의 형태를 가지지만, 장신구류의 네팅 구조는 면보다는 끈을 형성하는 고대 니트 기법이 활용되는 차이점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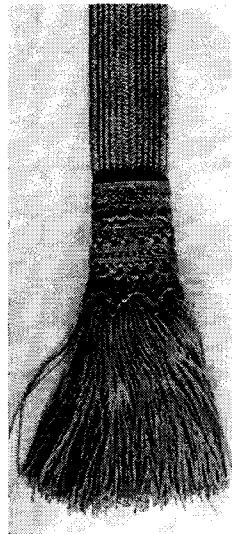
<그림 19> 귀걸이술
이화여대 박물관



<그림 20> 호랑이발톱 노리개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시대의 또 다른 장신구류인 편조(扁組)인 다회<그림 20>에서도 그 기법들을 볼 수 있다. 다회는 네팅의 꼬임에서 변화하여 외형상 스프랭과 유사한 조물(組物) 구조의 패브릭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직은 스프랭처럼 틀이 이용되지 않지만 땅음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다. 다회의 구조는 고대부터 ‘리(纏)’라 하였으며 2올 이상의 실을 사용하여 옆에 있는 실과 실을 끼워 교차하면서 땅아 코를 형성해 가는 방법으로 편직물의 특징인 신

축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21> 광다화(扁組)
단국대학교석주선박물관

IV. 결 론

현대의 니트라는 용어는 16세기 이후 생겨났지만 그의 기술적인 측면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감으로 용어 발생과 기술 발생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니트의 기원은 고대 염음조직과 땅음조직에서 시작하여 인류의 손과 도구 사용이 발달하면서 네팅, 넬바인딩, 스프랭, 크로쉐 등으로 분화 발전하였고, 중세와 근세를 거치면서 대바늘뜨기를 의미하는 니트와 코바늘뜨기를 의미하는 크로쉐로 변화하여 패브릭을 만드는 방법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니트 또한 기계화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같은 변천 과정 고찰에서 일련의 기법들을 포함하는 명칭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광의의 니트로 보고 그 정의는 매듭을 만들거나 꼬거나 엮거나 하여 코가 형성된 텍스타일이라 하였으며 현대의 대바늘뜨기의 기법으로 생산된 루프가 연결된 패브릭은 협의의 니트 또는 현대 니트라 정의하였다. 특히 현대 니트의

기원이 되는 네팅, 넬바인딩, 스프랭, 크로쉐등을 고대니트로 분류하였다.

고대니트 기법이 활용된 조선시대 복식들을 인체를 기준으로 수직적으로 구분하면, 모자류, 의상류, 신발류, 장신구류로 구분할 수 있다.

니트의 기법이 활용된 모자류에는 굴건, 탕건, 방건, 정자관 등이 있으며 네팅, 넬바인딩, 스프랭 기법들이 원형 그대로 활용되었다. 의상류에서 매크라메가 포함된 네팅 기법이 장식적 효과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활용되었으며, 도롱이, 등거리, 토시에서는 네팅과 넬바인딩이 활용되고 있었다. 신발류의 경우 네팅의 기법을 중심으로 활용되었다. 고대의 꼬임 기법에서부터 더 나아가 엮어가는 염음조직까지의 네팅의 변화 과정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장신구류는 끈목과 편조(扁組)가 중심으로 매크라메와 스프랭이 응용되었다.

본 연구 결과 조선시대에는 현대의 니트 기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등나무, 짚, 말총, 삼, 왕귤, 면, 견 등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소재로 고대의 꼬임기법과 염음기법에서부터 크로쉐를 제외한 네팅, 넬바인딩, 스프랭의 고대의 니트 기법들이 계승되어 복식에 다양하게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더욱더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의류시장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의상으로써 니트 디자인에 현대니트 뿐만 아니라 과거의 니트 기법을 활용하여 디자인 개발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고, 단절되어 있었던 한국 니트 역사 연구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1) 한성지(2000. 8). 니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매자의 의사결정 특성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심지민(1999. 2). 니트웨어를 위한 기본원형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 3) 이선희(2002. 8). 니트의 편직기법에 의한 디자인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이선희(2002. 4). 니트의 편직 기법에 의한 디자인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5) 주리(1992.2). 월팅기법을 응용한 니트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손희정. 이순홍(1991. 5). 니트웨어의 빌달과정과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 복식, 16(4) pp. 149~171.
- 7) 김경희. 이순홍(1994. 11). 니트웨어의 소비자성향 실태 및 업체에 관한 조사 연구. 복식, 23, pp. 131~171.
- 8) Richard Rutt(1989). *A History of Hand Knitting*. Loveland, Colorado: Interweave Press
- 9) 본 논문에서는 '대바늘뜨기의 원리'를 우리나라에서 통용하고 있는 '대바늘뜨기'라는 용어로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 10) シルバ編物研究會(1969). *編物教科書*. 東京シルバ編物研究會 總本部, p. 2.
- 11) Eve Harlow(1979). *The art of knitting*. 東京: (株)日本ヴォーダ社, p. 10.
- 12) 이선희(2004). 니트의 편직기법에 의한 디자인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9.
- 13) Richard Rutt(1989). *A history of hand knitting*. Loveland, Colorado: Interweave Press, p. 8.
- 14) Kax Wilson, 박남성, 차임선(2000). *A history of textiles*. 서울: 예경, p. 98.
- 15) 김은영(1998). 전통매듭. 서울: 대원사, p. 64.
- 16) 김은영(1998). 전통매듭. 서울: 대원사, p. 12.
- 17) 深作光貞, 신영선(1990). 衣의 문화인류학. 서울: 교문사, p. 20.
크래타섬에서 출토된 「유크라테스 대리석제우상」(기원전 2,300~2,000년경의 것)의 여성 나사에는 누의(紐衣)로 생각되는 선이 웨이스트 부분에 있고 같은 섬의 크노르소스 궁전 유적지에서 출토된 고대문명 미술의 걸작 프레스코 그림의 인물을 보면 몸을 둘둘 감고 있는 가들게 꼬인 거들같은 누의(紐衣)를 하고 있다.
- 18) 누의(紐衣): 허리에 둘러서 묶는 끈이나 끈목등을 엮거나 꼬아 만든 벨트의 일종
- 19) 김희진(1979). 한국매듭. 서울: 고려서적, p. 12.
- 20) Kax Wilson, 박남성, 차임선(2000). *A history of textiles*. 서울: 예경, p. 98.
- 21) 김희진(1979). 한국매듭. 서울: 고려서적, p. 13.
- 22) 이조시대에는 짜는 끈을 '다회(多繩)', 끈 만드는 것을 '다회친다'고 했다. 다회에는 광다회(廣多繪)와 동다회(圓多繪)가 있다. 전자는 주로 옷에 두르는 허리띠로 쓰이며, 후자는 노리개, 주머니끈 등과 각종 유소(流蘇 기·수레 등에 드리우는 술)를 만드는 소재로 쓰기 위해 짜는 것으로 끈목의 둘레가 둥근 것을 말한다.
- 23) Richard Rutt(1989). *A history of hand knitting*. Loveland, Colorado: Interweave Press, p. 8.
- 24) Kax Wilson. *A history of textile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p. 73.
- 25) Richard Rutt(1989). *A history of hand knitting*. Loveland, Colorado: Interweave Press, p. 8.
- 26) Richard Rutt(1989). *A history of hand knitting*. Loveland, Colorado: Interweave Press, p. 23.
- 27) Kax Wilson, 박남성, 차임선(2000). *A history of textiles*. 서울: 예경, p. 99.
- 28) Richard Rutt(1989). *A history of hand knitting*. Loveland, Colorado: Interweave Press, p. 10.
- 29) Kax Wilson, 박남성, 차임선(2000). *A history of textiles*. 서울: 예경, p. 99.
- 30) Richard Rutt(1989). *A history of hand knitting*. Loveland, Colorado: Interweave Press, p. 9.
- 31) John Gillow & Bryan Sentance(1999). *World textiles*. Boston: Little, Brown and Co., p. 56.
- 32) Richard Rutt(1989). *A history of hand knitting*. Loveland, Colorado: Interweave Press, p. 9.
- 33) Kax Wilson, 박남성, 차임선(2000). *A history of textiles*. 서울: 예경, p. 98.
- 34) John Gillow & Bryan Sentance(1999). *World textiles*. Boston: Little, Brown and Co., p. 56.
- 35) 심연옥(2002). 한국직물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p. 61. 고대 사선꼬임 염음 조직의 패브릭(fabric)을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는 리(罽)라고 불렀으며, 중국에서는 전국시대와 한 대에 많이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평양의 석암리와 채협총에서 1~2세기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 36) 장경희, 김옥선(2000). 탕건장. 서울: 화산문화, p. 10.
- 37) 김영숙(2002). 조선왕조후기 궁중복식. 서울: 신서, p. 252.
- 38) 2003 야후백과사전. <http://kr.encycl.yahoo.com>
- 39) 임영주(2001). 한국 전통매듭에 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5.